

▶ 우리병원을 소개합니다

# 삼성창원병원 산부인과



김민규  
성균관의대

저는 삼성창원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 부교수 김민규입니다. 2011년 9월부터 재직중으로 저희 병원의 역사에 비해서 그렇게 오랜기간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 글을 계기로 지난 시절을 한번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 역사

1981년 16개 진료과 200병상으로 처음 개원하였고 1994년 삼성의료원으로 편입되면서 1995년 마산 삼성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0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으로 법인 전환되어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고 2016년 7월 새로운 본관이 개원하여 744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로만 한정하면 일정부분 지역 또는 수도권권교의 수련기관들도 그렇듯이 전공의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지난 10여년 전 즈음 시점부터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이 삼성창원병원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지면서 교류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다시 자체 전공의들이 수련 배출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기준 전문의 5명 전공의 3명이



산부인과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출발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현재이지만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리고 제 2의 전성기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Gynecologic Oncology Division

현대의 질병이 다양 복잡화하고 진단 치료 기구와 약제의 도입으로 세분화된 전문치료가 현재의료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누구나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산부인과라는 분야에도 그 영향이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합한 의료진과 적절한 재료의 확보를 꾸준히 유지하기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해 온 지난 8년 여를 다시 정리해보면 산부인과 중증환자들의 비율이 산부인과 전체 환자중 2012년 3%에 머물렀던 부분이 2016년에 이르러서는 34% 정도로 성장할 정도로 100명 중 3명 정도 불과한 그 비율이 10명 중 3명으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사이에 암환자 같은 중증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기 보다는 지역의 중증환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의뢰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킨 부분이 인정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수도권의 중증진료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인식개선을 어느정도 이루어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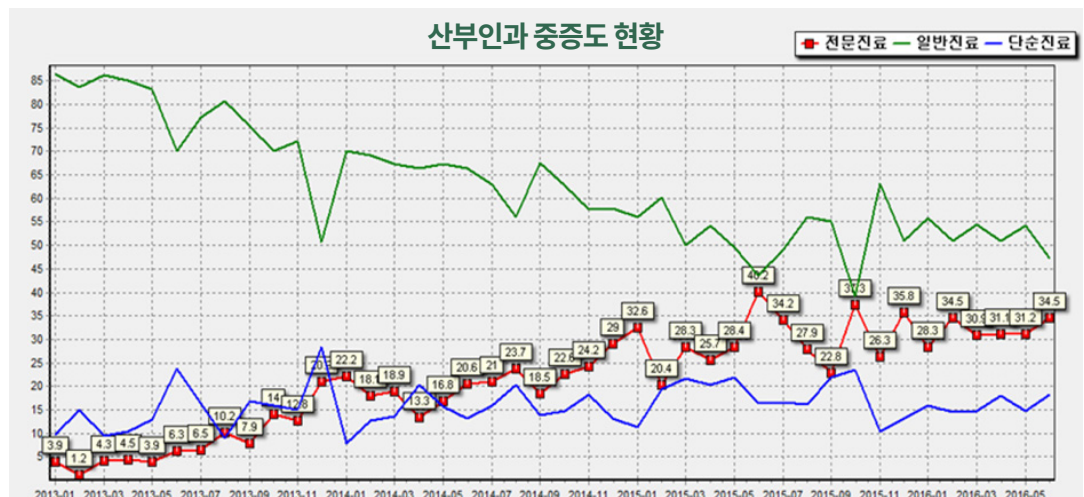
그 시기동안 2013년 방사선종양학과 개설 2014년 대학제 위원회 신설로 사전치료약제의 가용성이 높아졌고 삼성서울병원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어 오던 의료

진들의 합류로 원활한 협진진료 등의 치료의 기회도 좀더 확대되었습니다.

이후로 점차 발전하여 2018년 삼성의료원 산하 3개 병원(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의 연보를 인용하면 자궁경부암으로 삼성창원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또는 진행성 암환자의 전체적인 질병양상과 그에 따른 수술, 표적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등 다양한 치료패턴을 고려할 때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을 가져온 부분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져봅니다.

중증환자들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노력 또한 같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수술 후 회복 증진: ERAS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에도 근거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금식이나 비교적 간단한 치료나 수술에는 조기 퇴원을 권고 드리는 내부프로그램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중이며 개인화된 치료 정밀 치료를 위한 다양한 유전성 부인암 검사 및 표적치료제 완비 그리고 좀더 나은 미래치료를 위한 가능성 있는 임상시험에 환자등록들도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차차 도입하여 몇 가지 진행중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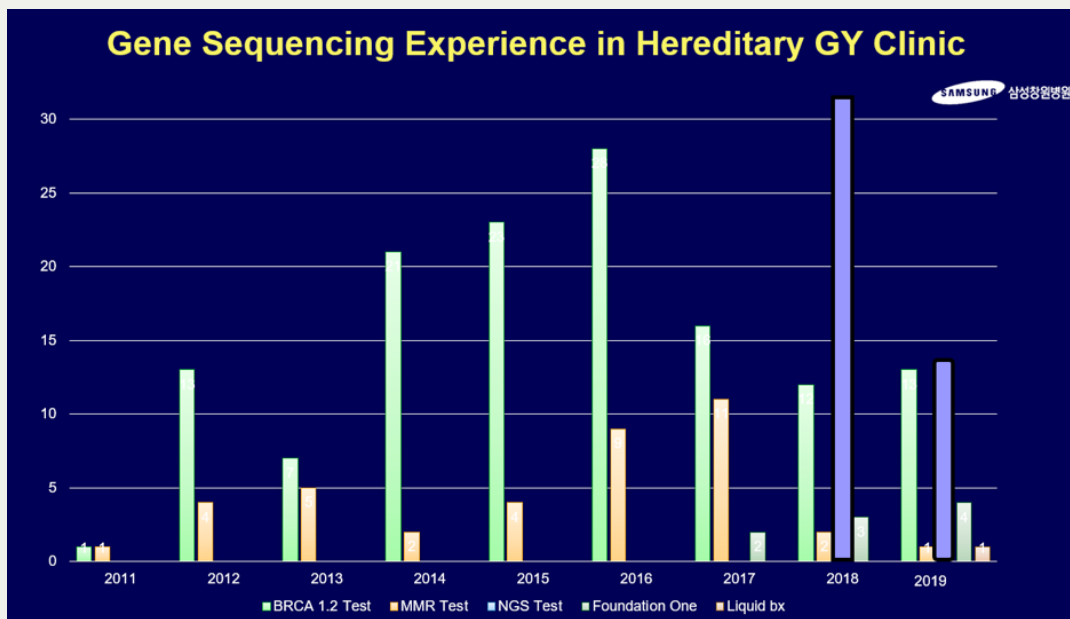
ANNUAL REPORT 2018

10대 암 발생 순위별 분포

• 여자

(단위: 건, %)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순위	원발부위	건수(구성비)	순위	원발부위	건수(구성비)	순위	원발부위	건수(구성비)
6	Cervix uteri	746 (5.8)	5	Cervix uteri	78 (6.2)	4	Cervix uteri	110 (9.5)
8	Ovary	395 (3.1)						
10	Corpus uteri	342 (2.7)						



Gynecologic Oncology Symposium

최신지견과 정보들을 다루는 다양한 심포지엄과 학회가 서울 등 수도권 주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환자들에게도 최신진료를 제공하고 상급병원 중증환자 진료진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지역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4년 전 관심있는 1-2분으로 시작해온 Samsung Changwon Gynecologic Oncology Symposium은 매년 1월에 개최해 오고 있고 초청연자분도 이번(2020년 1월11일)에는 20여 분이 넘는 단계로 성장해 왔습니다.



